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방향



千吉成 / 國科研 기술연구본부장  
공학박사



국방과학기술은 국방부의 전담 분야이기  
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학·  
연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  
해서는 일정액을 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은 모방이나 답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내어 기술적 기습을 달성할수 있어  
야 합니다

**과학** 은 전쟁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걸프전은 앞으로 미래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리란 예측을 가능하게 합  
니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국방비가 감소하더라도,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  
하기 위해 더욱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을 향해 줄달음을 치  
고 있는데, 경제 성장과 병행해서 생존능력의  
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국방 연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인식과 실체를 살펴보  
면, 70년대에 국가독립이 곧 자주병기생산에  
달려있다는 개념 아래 국방연구개발에 전력  
투구하여 성장기를 구가한 반면, 80년대에는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여 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인식 부족 징후를 살펴보면  
총체적 연구개발 전락부재, 전문인력 양성 소홀,  
국방연구개발(독자개발)의지 부재를 들수 있  
습니다.

또한 정책입안과 집행제도의 불일치와 제도  
개선미흡으로 방산업체 가동률 저하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한국적 독자 무기체계가 전  
무하여 핵심기술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 • 당면 문제점

국방연구개발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  
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기술의 미확보로 대외 경쟁력이  
미약하고, 수출실적과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첨  
단무기 설계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국방연구개발 투자비의 저조로 핵심기  
술 개발에 한계를 느끼며, 양질의 연구인력 양  
성, 유치가 미흡하고 해외 기술개발 연계도 미  
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우  
선순위 설정에도 곤란을 느끼고 있으며, 산·학  
·연 연계도 미흡합니다.

셋째, 軍 전문인력 양성 소홀 문제로 소요,  
획득, 운영부서의 기술 정책 및 종합추진력이  
취약합니다.

또한 총체적 상황판단 미흡으로 전략부재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며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넷째,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개발실적이 미흡 합니다. 예를들면 전장 감시 분야와, 야간 전투력 향상 분야등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 • 개선방향

첫째, 전력증강 형태를 고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력증강 방향을 단기적으로 현 전력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동율을 향상시키고 PIP, ILS에 주력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개발정책의 수립입니다.

최우선 국책(국방부 차원) 연구과제를 선정 한 후에 또한 무슨분야를 세계 제일로 끌어 올릴 것인가를 선정하여 일정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투자비의 증액 문제 입니다.

미래 전력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경제기획원에서 일정액(국방비의 5~7%)을 배당하여 국방부가 관리하며, 현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각군 전력 증강비 내에서 실시하여 각군 총장이 관리 합니다.

이는 국방연구개발의 실질적인 투자증액 효과와 국방부 뿐아니라 각 군에게도 국방연구개발에 책임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국방연구개발비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산·학·연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비의 증액 및 대학기관 연구센터를 운용하고 국방과학기술 관련 공개 가능 분야와 보안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여 민수기술 운용화 및 군용기술 민수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과연 주변에 기술 용역 기관을 활성화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개발은 안보와 직결된 우선권이 높은 분야로 모든 선진국이 통수권자의 관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은 반드시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고, 작은 나라일수록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개발 우선순위가 중요시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는 국방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인력 확보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방부 뿐 아니라 각 군도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임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국방연구개발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방비의 적정선을 논의하는 것은 국방비를 소모성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방연구개발비는 소모성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가 높은 이유는 70%이상의 민수용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에 주력할 분야는 전장 감시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다음은 전투력 증강 분야로써 야간 전투력 향상, 정밀 유도무기, 기동장비 순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나 훈련 측면에서 앞으로 시뮬레이션 관련 기술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기술은 국방부의 전담 분야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학·학·연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액을 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은 모방이나 답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 내어 기술적 기습을 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여 독자적 핵심기술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력증강 방향을 지금 현 전력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미국을 최대한 이용해 앞으로 10년만이라도 국방연구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음놓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